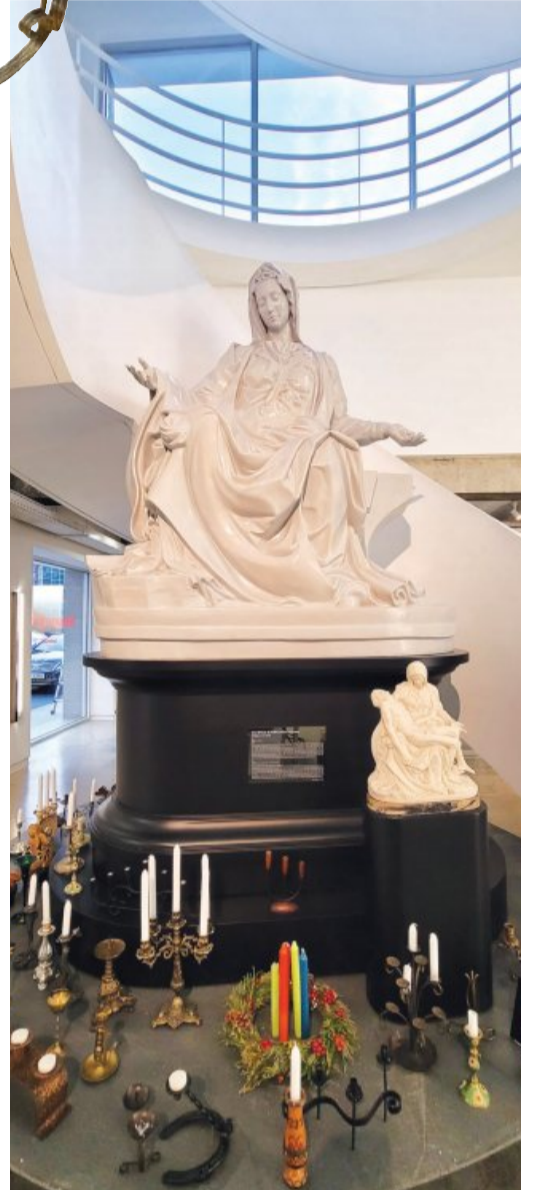




이이남 작가의 미디어아트와 200여개의 촛대가 어우러진 '밝히고 비추는'전에서 만나는 이이남 작 '고흐의 감자 먹는 사람들-다시 태어나는 빛'과 촛대들.

철학자 성진기 교수 촛대 200점, 이이남 작가 10여점 전시
과거와 현재의 빛 연결... 팬데믹 시대 '위로의 빛' 전해
7일부터 이이남 아트뮤지엄...기념 공연·촛불 점화식



이이남 작가의 대표작 '다시 일어서는 빛'과 불을 밝힌 촛대의 모습.

촛대와 미디어아트 “빛이 빛을 밝히다”

대형 스크린으로 보여지는 작품은 고흐의 대표작 '감자 먹는 사람들'이다. 노동자를 마친 소박한 사람들의 식탁을 비추는 건 등잔불. 여기에 원작에는 없는 촛불이 따스한 온기를 전한다. 시간이 흐름에 따라 촛불은 조금씩 흔들리고, 그림 속 가족들이 커 피를 따르는 모습도 만날 수 있다. 이어 고흐의 '자화상'을 재해석한 영상, '다시 태어나는 빛' 등 다채로운 미디어 아트의 세계가 펼쳐진다.

작품 앞에는 고가구에 놓인 다양한 촛대가 눈길을 끈다. 수십, 수백년의 세월을 지나온 전 세계의 다양한 촛대들이다. 작품 화면이 바뀔 때마다 작은 불빛을 밝히는 촛대는 다양한 모습으로 다가와 흥미롭다.

미디어아트와 촛대가 어우러진 전시가 열린다. 연말연시를 맞아 따뜻함과 위로를 전하는 특별한 전시로 미디어 아티스트 이이남과 철학자 성진기 전담대 명예교수가 만난 기획전이다.

7일 개막해 내년 2월13일까지 이이남 스튜디오 아트뮤지엄(광주시 남구 제중로 47번길)에서 열린다.

'밝히고 비추는 Shining bright!'전은 촛불의 '빛'을 위해 존재하던 촛대와 미디어 아트의 '빛'이 만나 모두의 마음에 빛을 밝히는 전시다. 과거의 빛을 상징하는 촛불과 촛대, 현재와 미래의 빛을 상징하는 미디어아트로 과거와 현재를 잇는 기획이기도 하다.

이번 전시에서는 촛대 200여 점과 미디어 작품 10여점을 만날 수 있다. 촛대는 성 교수가 40년간 모아온 것들이다. 촛대와 인연은 베를린 대학 연구교수로 파견됐던 1980년대 초 겨울날 벼룩시장에서 구입한 촛대 하나에서 시작했다. 매일 밤 작은 촛대에 불을 밝히며 위로를 받았고, 시간이 날 때마다 유럽 이곳 저곳에서 촛대를 수집하기 시작했다.

이번 전시에는 500점의 소장품 중 200여 점이 나왔다. 유럽 등 여러 각국에서 만들어졌던 촛대와 금속, 나무, 유리 등 다양한 재료로 만들어진 촛대의 다양성을 보여준다.

미디어 아트 작품은 이 작가의 작품들 중 '빛'이 담긴 작품들로 선정됐다. 고흐의 '감자 먹는 사람

들' 속 촛불을 비롯해 촛불을 든 아이의 작은 손이 인상적인 조르주 라 투르의 '목수 성 요셉'과 '작은 등불 앞의 막달라 마리아', 게르하르트 리히터의 '촛불' 등 빛이 등장하는 작품들을 다시 제작했다.

촛대는 피에타를 소재로 한 대표 조형물 '다시 태어나는 빛' 작품을 원형으로 둘러싼 공간을 비롯해 카페, 갤러리 등이 어우러진 이이남 스튜디오 곳곳에 자리하고 있다.

팬데믹으로 힘들었던 시절을 건너온 우리 모두에게 위로의 빛을 전해보자는 이야기에서 출발한 전시는 많은 이들의 마음이 합쳐져 완성됐다. 박성수 전남대 명예교수, 최옥수 사진작가, 김명준 아트

디렉터, 정서연 푸르니보육지원재단 책임연구원, 문희영 예술공간 집 디렉터 등이 기획으로 참여했고 이창규·박관규씨는 형형색색의 화려한 조를 후원했다. 한국전력도 힘을 보탰다.

7일 오후 5시 기념 공연과 촛불 점화식을 진행하며 전시기간 중 퓨전재즈 공연, 기념강연 등 '빛'을 전하는 다양한 이야기가 펼쳐진다.

한편 연계 전시로 열리는 'good night' (2022년 2월 28일까지)전은 시골밤의 모습을 촬영한 영상 작품 등을 통해 '쉽'의 의미를 전달하는 기획으로 '오느른'과 협업했다. 연중 무휴, 개관 오전 10시~오후 8시.

한편 연계 전시로 열리는 'good night' (2022년 2월 28일까지)전은 시골밤의 모습을 촬영한 영상 작품 등을 통해 '쉽'의 의미를 전달하는 기획으로 '오느른'과 협업했다. 연중 무휴, 개관 오전 10시~오후 8시.

한편 연계 전시로 열리는 'good night' (2022년 2월 28일까지)전은 시골밤의 모습을 촬영한 영상 작품 등을 통해 '쉽'의 의미를 전달하는 기획으로 '오느른'과 협업했다. 연중 무휴, 개관 오전 10시~오후 8시.

한편 연계 전시로 열리는 'good night' (2022년 2월 28일까지)전은 시골밤의 모습을 촬영한 영상 작품 등을 통해 '쉽'의 의미를 전달하는 기획으로 '오느른'과 협업했다. 연중 무휴, 개관 오전 10시~오후 8시.

한편 연계 전시로 열리는 'good night' (2022년 2월 28일까지)전은 시골밤의 모습을 촬영한 영상 작품 등을 통해 '쉽'의 의미를 전달하는 기획으로 '오느른'과 협업했다. 연중 무휴, 개관 오전 10시~오후 8시.

한편 연계 전시로 열리는 'good night' (2022년 2월 28일까지)전은 시골밤의 모습을 촬영한 영상 작품 등을 통해 '쉽'의 의미를 전달하는 기획으로 '오느른'과 협업했다. 연중 무휴, 개관 오전 10시~오후 8시.

한편 연계 전시로 열리는 'good night' (2022년 2월 28일까지)전은 시골밤의 모습을 촬영한 영상 작품 등을 통해 '쉽'의 의미를 전달하는 기획으로 '오느른'과 협업했다. 연중 무휴, 개관 오전 10시~오후 8시.



'퍼포먼스 아트 투어' 55일의 기록

소설가 박경화 '천사가 오는 방법' 출간

소설가 박경화는 퍼포먼스 아티스트다. 그의 말처럼 퍼포먼스 아트는 음악과 회화와 달리 아직 우리의 일상 속에 친숙하게 들어가 있지 않은 장르다. 그는 "소설을 쓰는 일이 탈진에 되도록 사각 밀실 안에 스스로를 몰아넣는 작업이라면 퍼포먼스 아트는 매마른 광장에 뒹 내던져지는 느낌"이라고 말한다. "현장의 관객과 사투를 벌여야만 하는 것, 냉혹하고 자비 없는 것"이지만 그가 저항할 수 없는 중독, 퍼포먼스에 빠져 든 건 바로 상상한 그 '현장의 예측불허'였다.

지난 2000년 신춘문예를 통해 등단한 그는 소설 '태엽 감는 여자' '뒹뒹' 등을 펴냈다. 2012년 김광철 아티스트가 운영하는 김광철 퍼포먼스아트 아카데미 1기 과정을 마친 그는 이듬해 김 작가와 함께 베를린으로 아트 투어를 떠나며 퍼포먼스 아트라는 새로운 장르에 마음을 빼앗겼다.

이번에 나온 책 '천사가 오는 방법-세계 9개 도시 떠난 아트 투어 에세이'는 2018년 6월 55일간의 여정으로 떠난 퍼포먼스 아트 투어 기록이다. 지난 2017년 폴란드 여섯 도시를 기록한 '매혹하는 사람들'의 연계 작업이기도 하다.



폴란드 소코로브스크에서 열린 박경화 작가의 퍼포먼스 아트 모습.

박 작가는 이탈리아 갈라티니를 시작으로 폴란드 소코로브스크, 프라하, 암스테르담, 하노이, 베를린, 다카, 산토리니, 아테네로 이어지는 퍼포먼스 이벤트와 국제 페스티벌의 여정을 그는 마치 예술 다큐멘타리를 보듯 세세하게 기록하고 다양한 현장 사진과 영상 캡처 사진을 통해 보여준다.

책 속에 담긴 건 '삶과 예술, 사람과 희망, 고독과 긍정' 기록이다. '어항', '나의 맨발' 등 자신의 작품을 선보일 땐 긴장하며 마음을 다잡는다. '화살처럼 내 몸 위로 쏟아져 박혀 들어오는' 관객들과 타국의

아티스트들의 시선을 넘어 "동요 없이 결말을 향해 달려가야" 하기 때문이다. '일회적이고, 반복·수정되지 않는' 퍼포먼스 아트로 사람들의 마음을 건드리고 예측을 비껴가 숨이 멎도록 무대를 압도해야 하는 것도 그의 일이다.

책에서는 또 각국의 아티스트와의 우정과 연대, 여행 동반자인 김광철 작가와의 협업과 갈등 등을 솔직하게 담았으며 '까망이'를 비롯해 고양이와 와인에 대한 이야기도 흥미를 끈다.

/김미은 기자 mekim@kwangju.co.kr

오페라 유니버스 '사랑과 추억'

광주여성솔리스트앙상블, 8일 광주 남구문예회관

오페라 '사랑의 묘약', '카르멘' 등 다양한 오페라 작품을 하나의 작품처럼 연결해 선보이는 시간이 마련된다.

광주여성솔리스트앙상블(대표 이현희·사진)은 오는 8일 오후 7시 광주 남구문화예술회관에서 오페라 유니버스 'Love & Memory (사랑과 추억)'를 선보인다.

공연은 도니제티의 오페라 '돈 파스칼레' 중 '기사의 뜨거운 눈길'로 시작해 '사랑의 묘약' 중 '금화 20냥', 로시니 '세빌리아의 이발사' 중 '방금 들린 그대 음성', 오펜바흐의 '호프만의 이야기' 중 '인형의 노래' 등으로 구성됐다. 이와 함께 모차르트의 '티토황제의 자비' 중 '잠시만 시간을 내주세요', 푸치니 '투란도트' 중 '공주는 잠 못 이루고', 사라사테 '카르멘 판타지', 피아졸라 '아디오스 노니노', 라라 '그라나다' 등도 만날 수 있다.

이현희 대표가 총감독을 맡은 이번 공연에는 소프라노 김에셀-강수연, 메조소프라노 임지현·고은비, 테너 이상화, 바리톤 김치영, 피아



노이지은, 바이올린 박승원, 반도네온 김국주 등이 출연한다.

한편 광주여성솔리스트앙상블은 광주·전남 지역 출신의 성악가와 바이올린, 첼로, 플루트 등 관현악 솔리스트들로 구성된 단체로 다채로운 공연으로 관객과 만나고 있다. 전석 1만원. 문의 010-2584-2160.

/전재제 기자 ej6621@kwangju.co.kr

LOTTE CINEMA | 증장로관

단체 및 대관문의 1544-8855

- 1관 연애 빠진 로맨스
- 2관 엔칸토: 마법의 세계
- 3관 연애 빠진 로맨스
- 4관 고스트버스터즈 라이즈
- 5관 유체이탈자
- 6관 유체이탈자
- 9관 고스트버스터즈 라이즈, 베네데타, 장르만 로맨스
- 7관 씨네캐슬 엔칸토: 마법의 세계, 태일이, 라스트 나잇 인 소호, 심계
- 8관 씨네캐슬 팬텀: 더 뮤지컬 라이브, 둔

광주문화예술회관 문의 062)613-8353

Baritone Gilson Kim Recital

2021. 12. 13 (월) 19:30

광주문화예술회관 소극장

문의 : 062-613-8235

어린이 무용 <루돌프>

일시 : 2021.12.19.(일)

장소 : 광주문화예술회관 소극장

문의 : 062-613-8233